

2019년 2/4분기

---

# 기계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

## ■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9. 6.



**기계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 목 차 ●●●

## ■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요약 ] .....	1
Ⅰ. IPP형 일학습병행제 현황과 문제점 .....	3
가. IPP형 일학습병행제 현황 .....	3
나. IPP형 일학습병행제 문제점 .....	4
Ⅱ. IPP형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	6
가. 시사점 .....	6
나. 대응방안 .....	7
Ⅲ. 결론 및 제언 .....	8

□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 IPP(Industrial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 ‘IPP(장기현장실습)’와 ‘일학습병행제’ 두 프로그램을 융합한 형태의 지원정책으로서 IPP는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10개월)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기존의 기업 인턴, 현장실습 등 단기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근 산업동향 및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학업학기’와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 실습하기’를 통합 시킨 산학협력교육 교육 모델인 IPP(장기 현장실습) 사업 및 4년제 대학 단계 일학습병행사업을 말한다.
- 일학습병행 : 독일, 스위스 도제훈련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직업교육훈련제도’이다. 기업현장에서 기업현장교수가 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공동훈련센터,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한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인정하는 산업계 중심의 새로운 교육훈련제도이다.

I. IPP형 일학습병행제 현황과 문제점

- ◇ 국내 38개 4년제 대학교에서 운영중이고 참가하고 있는 기업체수는 약 900여개 기업이고 이중 412개 기업체는 제조업으로서 전체 제조업의 0.6%가 참여하고 있음
- ◇ 소기업이 다수(90%이상 매출 10억 미만)참여하고 있으며, 기업과 학생간의 이해의 폭이 크게 작용하며, 참여한 학생의 순수 취업 비율이 20%내외로서 긍정적이지만 개선할 요소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

II. IPP형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 ◇ 학생은 우수기업을 선호하고 기업은 인성과 전공을 이수한 우수한 학생을 선호
  -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실습을 마친 후 취업 포기(50%이상)
  - 장기현장실습은 기업을 미리 체험하고 직무경험을 이수하는 이점을 제공하지만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20%이하 수준임



- NCS의 4~5수준으로 현장실습을 수행하지만 적합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매우 적고 또한 현장교수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함
- ◇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의 전략적인 기업 현장 수요인력 조사와 분석이 미비하여 기업과 대학의 미스매칭이 지속적으로 발생

### Ⅲ. 결론 및 제언

- ◇ 수요인력 분석을 통해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 및 교재 개발
- ◇ 수요자 중심의 운영 개선이 요구됨(운영대학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IPP일학습병행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

## I IPP형 일학습병행제 현황과 문제점

### 가. IPP형 일학습병행제 현황

#### ○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필요성

- 최근 4년제 학사학위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문제에 대한 대학교육의 부정적 인식 확산
- 대학교 학사학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82.2%],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별관계가 없어서, 53.4%], [국내 대학의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15.1%]로 부정적으로 조사됨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6

- 특히 대학생들이 취업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관련분야 경력(인턴경력 포함), 63.9%]을 꼽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사회진출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 정책 동향

-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정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오프라인 청년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진로탐색 정책으로 대학일자리센터, 직무능력 키우기 정책으로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일경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상기 청년정책은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 세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이상 실업률 지속적으로 증가
- 대학졸업이상 실업률을 보면 2014년 3.5%, 2015년 3.6%, 2016년 3.7%, 2017년 3.9%, 2018년 3.8%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 프로그램 등을 비추어 볼 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2019년 05월호 통권제 103호, '매월 노동시장 분석'



○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태동

- IPP형 일학습병행제(Industrial Professional Practice)는 ‘IPP(장기현장실습)’와 ‘일학습병행제’ 두 프로그램을 융합한 형태의 지원정책으로서 한국기술교육대가 2012년부터 운영하던 ‘기업연계형 IPP’를 4년제 대학으로 확장한 모델
- IPP는 대학교 교과과정을 대신해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10개월) 근무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로 단기 현장실습, 실무와 동떨어진 기업 인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
- 본 취지는 학생이 장기 현장실습을 먼저 경험한 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취업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한다는 개념이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연계 실적은 매우 저조

○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운영결과

- 4년제 대학에서는, 취업을 전제로 4학년에 취업 예정인 학생과 구인기업 간 매칭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에 입각해 예산 규모에 맞춰 전혀 다른 성격의 IPP를 무리하게 일학습병행제와 연계하여 효율화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효과는 미지수로 평가되고 있음
- IPP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은 전국 38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20-30%만이 해당 기업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고 있음

나. IPP형 일학습병행제 문제점

○ 링크플러스사업 등과 중복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 링크플러스사업은 일반대 75개교, 전문대 59개교, 고용노동부 IPP 일학습병행제 38개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인턴지원사업, 서울시 27개교를 지원하다보니 중복선정되는 대학이 많아지면서 각각의 규정에 의해 학생들에게 혼란 야기
- 대학에서 서로 다른 부처 사업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학생과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달라 불만 제기

○ 참여기업의 IPP 일학습병행제 외면

- IPP일학습병행 사업은 취업연계로 정부에서 4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95만원을 부담하였지만 최근 2년사이 최저임금이 29%이상 상승하여 기업에서는 135만원을 지급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30%이상의 기업이 본 제도를 포기하고 있음
- 대학은 예산만 책기고 지속적인 멘토가 진행되지 않아, 1년 가까이 실습생에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실습생은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기업체에서 실습생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IPP일학습병행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포기 발생

○ 실적 달성 중심의 정부와 지원사업 주관기관인 대학간 관점 차이

- 당초 채용전제형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지만 실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채용이 용이한 단순 인턴성격의 장기 현장 실습을 무리하게 수행

○ 참여학생 절반 이상이 취업 외면

- 2017년 22개 대학에서 652명(92명 이탈) 중 328명만이 취업하고 있으나 상세하게 분석하여 보면 일학습병행제 참여 동일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20%미만이고 다른 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30%수준 정도임
- 공공기관, 대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아 학생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관심 저하

## II

## IPP형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가. 시사점

## ○ 캐나다 워털루대의 모범사례

-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워털루대학교는 6,700개 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50%가 대기업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점이 있음
- 현장실습 전담인력만 300명으로 학생들은 최소 3개월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참여기업체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4개월 단위의 학기를 14번 보내면서 학기의 절반 가까이를 기업체에서 지내며 정규직 수준의 실무역량과 학업지식을 습득하고 있음
- 전담인력들은 대부분 현장실습 참여기업 섭외, 실습기업 인터뷰 조율, 실습기업 탐방 및 피드백을 통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학과 협력관계를 맺은 기업이 6,700개에 달해 학생들은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다양한 산업현장을 경험(실제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비율은 대기업 49.7%, 중소기업 48.2%, 창업기업 2.1%로 균형)

## ○ 국내대학의 운영 상황

- IPP 일학습병행 전담조직 단장은 정년트랙 교수가 담당하고 부단장 및 전담인력은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전담교수가 과거에 구축해온 기업체의 접촉이 끝나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전담인력의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져 지속성이 없다는 사실은 캐나다 워털루대학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 이러한 운영은 책임감 결여로 이어져 투자 대비 성과가 낮은 비효율적인 지원정책으로 전락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시각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65.4%로 조사되어 연구와 실습중심 대학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전문성과 특성화를 확보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함



## 나. 대응방안

- 산업현장의 정확한 수요인력 분석 수행
  - 기존기업과 신규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한 수요조사와 분석 실시
  -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NCS 과정의 프로그램 개발
  - 산학협력교육에 바탕을 둔 Co-op(Co-operative education) 훈련 과정을 철저히 시행·운영(미국의 센트럴위싱턴대학,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 독일의 DHBW(Duale Hochschule Baden-Wurttemberg))
  - 기업별 수요조사에 따른 업종별 특성화에 따른 교과과정 및 실습일정의 탄력적 운영 조정(기업체 사전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결정하고 주관 기관에 승인을 득하고 진행)
-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RSC(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계를 통한 참여기업 발굴
  - 산업현장 수요 인력 분석시 ISC, RSC와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 산업현장의 프로젝트를 통한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대학 교수와 일학습병행 실습자의 매칭으로 기업에게 제안
- 수요기업체의 채용권한 부여
  - IPP일학습병행 운영대학에서는 수요인력 분석결과에 대한 NCS 교과목을 편성
  - 채용기업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맞춤형으로 대학과 계약을 통하여 필요인력 현장실습(OJT) 수행

## III

## 결론 및 제언

- 정부 부처 지원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IPP 일학습병행제 도입의 중요성 인식 필요
  - 지원기관인 정부와 지자체의 경쟁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지원금과 중복되는 지원정책 정리(링크플러스, IPP일학습병행, 지자체 청년취업프로그램 등은 부처별 경쟁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세금낭비 초래)
  - 정부와 지자체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는데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
  -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기존 IPP 일학습병행제 운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책임감 필요
  - NCS 기반의 일학습병행제는 2013년부터 운영해온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IPP일학습병행제는 수요자의 맞춤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전후 공정이 연결된 스마트 생산 설비 최적 성능 유지를 위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과정 수요조사를 통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시설 및 도구의 투자 필요
  - 맞춤형 기업 현장의 전문인력, 설비, 주변환경 등을 조사하여 미비한 설비 및 도구, 인력을 대학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맞춤형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대학에서는 정부 사업을 일단 따보고 보자는 실적 채우기 경쟁에 몰입되어 있어 세금 낭비의 요소가 되고 있어 공정하고 과감한 평가를 통한 퇴출제도 강화가 필요
  - 참여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기업의 매칭이 본 사업의 성공과 연결되므로 학생과 참여기업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매칭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 Co-op(Co-operative education)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RSC(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연계된 Co-op 운영체제 가동으로 효율적인 IPP일학습병행 안정화 단계 진입이 요구됨

- 수요인력 통계조사를 통해 정량적인 Data 분석을 통한 참여기업 풀 운영
- 수요인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PP 일학습병행 수준 지도 방법의 제도개선

○ 제언

- 분야별 ISC, RSC의 전문그룹과 연계한 수요인력 조사, 맞춤형 교육 훈련과정 및 교재 개발, 참여기업 추천, 참여학생 선발 등의 협업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IPP 일학습병행의 근본 취지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정부주도의 평가보다는 분야별 ISC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공정한 평가에 위임하는 정책의 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세금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인 IPP 일학습병행 교육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 관계부처의 혁신이 요구됨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문헌[2017년 일학습병행제 이슈분석/한국산업인력공단], 참고사이트 서울경제신문[<https://www.sedaily.com/NewsView>]
- 작성자 : 한라대학교 한석만 교수
- 관련 문의 : 기계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HR정책그룹 윤상열 대리(02-784-9348, p@koami.or.kr)